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주 편) 행함은 열매를 맺은 단계다. 믿음은 꽃을 피운 단계다.
2. 과일나무가 있어도 과수원지기가 과일나무를 가꾸고 퇴비하는 등 그 행함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고 못 맺게 되기도 한다. ‘자기’라는 과일나무를 어서 가꾸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열매를 열게 하고, 열매를 맺은 자는 키워라. 주님은 꼭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열매를 따러 오신다.
3. 천국에서는 사랑을 보는 것이 먹는 것이다.
4. 황금은 자기가 안 먹어도 보는 것이 취하는 것이다. 천국 사랑이 이러하다.
5.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근본은 자기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해 주님을 신랑으로 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6.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표현은 수백 가지다. / ①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② 주님의 욕이 되어 살면서, 그 말씀을 때에 따라 합당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③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돕고 위해 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④ 주님의 몸 된 성전을 아끼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⑤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신앙이 약한 자들을 돕고 관리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⑥ 주님을 위해 세상 것을 끊고 사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이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7. 주님의 영(성자 본체의 영)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 해도 그 앞에 막 못 나타나신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는 것을 믿어라. 자기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것은 매일 열매로 열려 있고, 마음에 깨달은 것은 꽃으로 만발해 있다. 믿고 늘 기도하여라.

8. 주님과 자기 사이의 한 줄은 ‘오직 사랑 줄’이다. 믿음도, 그 어떤 소망도 사랑 줄 하나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다.

9.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유산된다.

10. 주님의 사랑과 그 욕이 되는 자의 사랑이 확실해도 자신이 확실히 행하지 않으면 그 위치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11. 신앙이 힘든 자는 주님의 사랑과 그 욕이 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없는 자다.

12. ‘사랑의 힘’은 자기가 할수록 받는다.

13. 구원도, 휴거도, 믿음도, 힘도, 행함도 모두 ‘사랑’에서 온다.

14. ‘회개’도 주님 사랑으로 해야 쉽게 된다.

15. 주님과 주님의 욕이 되는 자가 왜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자는 자기가 사랑을 받고도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16. (주 편) 저마다 마음의 길을 어디로 내느냐에 따라 나 예수가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마음의 얼굴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 예수가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

17. (주 편) ‘마음’이라는 얼굴이 있다. 생각에 따라 마음의 표정이 달라진다. 나 예수는 그 마음의 표정을 보고 대해 준다.

18. (주 편) 온전한 사랑의 미소의 얼굴로 나 예수를 대하는 자를 보면 나 예수의 얼굴도 그와 같이 된다.

19. (주 편) 행한 자만 알 수 있다.

20. (주 편) 행한 자들만 가는 길이 따로 있고, 배운 것으로 끝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21. (주 편) 실제로 사랑하는 자를 날마다 사랑한다.

22.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일일이 보이지 않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망에 거하지 않고 생명길로 가도록 우리 육신을 수백 가지로 도우신다. 그것이 늘 끌어안고 사랑해 주는 것임을 깨달아라.

23. 자기 영혼과 육신이 잘되게 늘 기도해 주는 것, 자기 물음에 대답해 주는 것이 모두 사랑이다.

24. 주님이 자기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다. 자기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다.

25.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모두 사랑의 열매로 열리고, 주님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나날이 사랑의 열매가 익어 간다.

26. 주님이 그 모습을 안 보여 주셔도 주님이 너를 사랑하심을 믿고 행하여라. 특별히 어떤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 모습을 보여 주면, 그같이 못 하는 자들은 주님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 소외감을 갖고 더 못 한다. 그러니 자기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 대가로 늘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심을 믿어라. 또한 그 대가로 자기 집이 천국에 건설되고 있음을 믿고 행하여라.

27.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여 행한 것만 주님께 전달된다.